

# KLSI

## ISSUE PAPER

제 180호  
2022-19호  
(2022.12.01.)

[www.klsi.org](http://www.klsi.org)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2.8)결과-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

[목차]

I. 비정규직 규모

II.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보론] 비정규직 규모 추정 방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407 (백련빌딩) 701호

전화 02)393-1459

팩스 02)393-4449

[www.facebook.com/ksli.org/](http://www.facebook.com/ksli.org/)

## 〈요 약〉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2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자(고용률)는 2021년 8월 2,760만명(61.2%)에서 2022년 8월 2,841만명(62.8%)으로 81만명(1.6%p) 증가했고, 노동자는 2,099만명에서 2,173만명으로 74만명 증가했다. 정규직은 1,196만명에서 1,272만명으로 76만명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904만명에서 900만명으로 4만명 감소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43.0%에서 41.4%로 감소했다.

둘째,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이 1만 9,019원에서 1만 9,715원으로 696원(3.7%)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만 2,102원에서 1만 2,989원으로 887원(7.3%)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62.8%에서 63.6%로 0.8%p 축소되었다.

월 임금은 정규직이 344만원에서 356만원으로 12만원(3.6%)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80만원에서 191만원으로 11만원(6.4%)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 임금 격차는 52.2%에서 53.7%로 1.5%p 축소되었다.

셋째, 임금 불평등(상위10%와 하위10% 컷오프의 임금 격차, P9010)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3.70배에서 3.36배로 축소되고, 월 임금 기준으로는 6.25배에서 5.45배로 축소되었다. 저임금 계층(중위임금의 2/3 미만)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16.1%에서 15.6%로 축소되고, 월 임금 총액 기준으로는 21.6%에서 19.4%로 축소되었다.

넷째, 법정 최저임금은 2021년 8,720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440원(5.0%) 인상되었다. 최저임금 수혜자(비율)는 192만명(9.2%)에서 222만명(10.2%)으로 30만명(1.0%p) 증가했고, 최저임금 미달자(비율)는 322만명(15.3%)에서 276만명(12.7%)으로 46만명(-2.6%p) 감소했다.

시급제 노동자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21년 3만명(1.4%)에서 2022년 43만명(17.6%)으로 40만명(16.2%p) 증가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 9천원(월 27만원 ÷ 월 30시간)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시급 9천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만 65세 이상 노인이 37만명에 이른다.

다섯째,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2021년 50.3%에서 2022년 51.9%로 1.6%p, 건강보험 가입률은 48.0%에서 49.7%로 1.7%p 개선되었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36.7%에서 36.8%로 제자리걸음

하고 있다.

여섯째, 노조 조합원수(조직률)는 265만명(12.6%)에서 269만명(12.4%)으로 4만명 (-0.2%p) 증가했다. 정규직은 238만명(19.9%)에서 241만명(18.9%)으로 3만명 (-1.0%p), 비정규직은 27만명(3.0%)에서 28만명(3.1%)으로 1만명(0.1%p) 증가했다.

끝으로 지금까지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2020~21년 코로나 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취업자(고용률)는 증가하고 실업자(실업률)는 감소하고 비정규직 비율은 감소했다. 임금 불평등과 저임금계층은 축소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축소되었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조 조직률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럼에도 시급제 노동자 중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40만명 늘어난 것은, 정부가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시급을 법정 최저임금(9160원)에 못 미치는 9천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

## I. 비정규직 규모

### 1. 전체

통계청이 2022년 8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900만명(임금노동자의 41.4%)이고 정규직은 1,272만명(58.6%)이다. 세부 고용형태별로는 기간제가 469만명(21.6%)으로 가장 많고, 시간제(파트타임)도 369만명(17.0%)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의 93.8%(900만명 가운데 844만명)가 임시근로자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표 1] 비정규직 규모 (2022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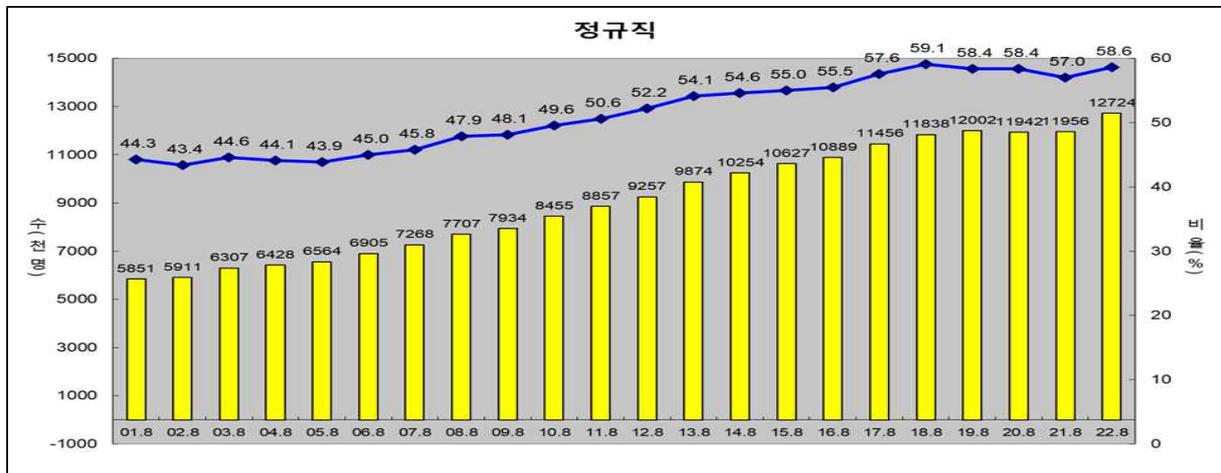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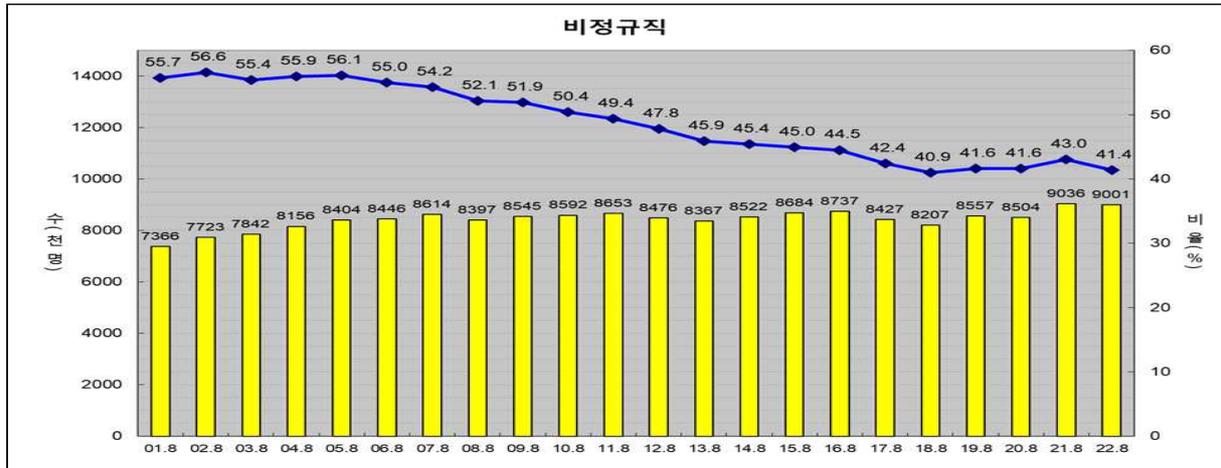
	수(천 명)				비율(%)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임금노동자(1)	15,801	4,773	1,151	21,725	72.7	22.0	5.3	100.0	
정규직(2=1-3)	12,724			12,724	58.6			58.6	
비정규직 (3=①+---+⑧, 중복제외)	3,077	4,773	1,151	9,001	14.2	22.0	5.3	41.4	
고용계약	임시근로	2,517	4,773	1,151	8,441	11.6	22.0	5.3	38.9
	장기임시근로 ①		2,167	980	3,147		10.0	4.5	14.5
	한시근로 ②	2,517	2,605	171	5,293	11.6	12.0	0.8	24.4
	(기간제)	2,484	2,129	77	4,690	11.4	9.8	0.4	21.6
근로시간	시간제근로③	731	2,482	474	3,687	3.4	11.4	2.2	17.0
	호출근로 ④			814	814			3.7	3.7
근로제공 방식	특수고용 ⑤	19	504	38	561	0.1	2.3	0.2	2.6
	파견용역	477	197	81	755	2.2	0.9	0.4	3.5
	(파견) ⑥	120	51	18	189	0.6	0.2	0.1	0.9
	(용역) ⑦	357	146	64	567	1.6	0.7	0.3	2.6
	가내근로 ⑧	35	38	21	94	0.2	0.2	0.1	0.4

비정규직은 2001년(737만명)부터 2007년(861만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년(840만명)부터 2016년(874만명)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조금씩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843만명)에는 31만명 감소했고, 2018년(821만명)에는 22만명 감소했다. 2019년(856만명)에는 증가세로 돌아서 35만명 증가했고, 2020년(850만명)에 5만명 감소했다. 2021년(904만명)에 54만명 증가했고, 2022년(900만명)에 다시 4만명 감소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54.2%)부터 2018년(40.9%)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9년 이후는 2021년(43.0%) 한 해를 제외하면 모두 41.4~41.6%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규직은 2001년(585만명)부터 2019년(1,200만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1,194만명)과 2021년(1,196만명)에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2022년(1,272만명)에는 한 해 사이 76만명 증가했다.

정규직 비율은 2001년(44.3%)부터 2005년(43.9%)까지 44%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6년(45.0%)부터 2018년(59.1%)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2019년 이후는 2021년(57.0%) 한 해를 제외하면 모두 58.4~58.6%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1]과 [표 2] 참조).

[그림 1] 비정규직과 정규직 규모 추이



[표 2]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수(천 명)					비율(%)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21년 8월	22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21년 8월	22년 8월
임금노동자	20,045	20,559	20,446	20,992	21,725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11,838	12,002	11,942	11,956	12,724	59.1	58.4	58.4	57.0	58.6
비정규직	8,207	8,557	8,504	9,036	9,001	40.9	41.6	41.6	43.0	41.4
임시근로	7,766	8,072	8,023	8,518	8,441	38.7	39.3	39.2	40.6	38.9
장기임시근로	4,166	3,645	3,386	3,364	3,147	20.8	17.7	16.6	16.0	14.5
한시근로	3,601	4,427	4,637	5,154	5,293	18.0	21.5	22.7	24.6	24.4
(기간제)	3,004	3,799	3,933	4,537	4,690	15.0	18.5	19.2	21.6	21.6
시간제근로	2,708	3,156	3,252	3,512	3,687	13.5	15.4	15.9	16.7	17.0
호출근로	801	748	896	954	814	4.0	3.6	4.4	4.5	3.7
특수고용	505	529	498	560	561	2.5	2.6	2.4	2.7	2.6
파견용역	785	797	716	795	755	3.9	3.9	3.5	3.8	3.5
(파견)	189	181	164	211	189	0.9	0.9	0.8	1.0	0.9
(용역)	595	616	552	584	567	3.0	3.0	2.7	2.8	2.6
가내근로	54	46	49	79	94	0.3	0.2	0.2	0.4	0.4

[참고] 비정규직 추계 방식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를 분석한 이 글에서 비정규직 규모는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중복 제외)’로 계산했고, 정규직 규모는 ‘임금노동자 - 비정규직’으로 계산했다(표 1) 참조.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임시근로: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자 - 한시근로

☞ 이 글에서 장기임시근로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장기간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장기임시근로자(permanent temporary worker, long-term temps, permatemps) 이외에, 업체 비소속 자유노동자(casual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② 한시근로: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문항 22번 응답 1)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문항 22번 응답 2 & 문항 63번 응답 2)

③ 시간제근로: 문항 64번 응답 2

④ 호출근로: 문항 62번 응답 1

⑤ 특수고용: 문항 67번 응답 1

⑥ 파견근로: 문항 65번 응답 2

⑦ 용역근로: 문항 65번 응답 3

☞ 설문조사에서 임금을 파견업체에서 받았다고 응답하면 파견근로, 용역업체에서 받았다고 응답하면 용역근로로 분류될 뿐,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구분해야 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합친 파견용역근로 분석결과도 함께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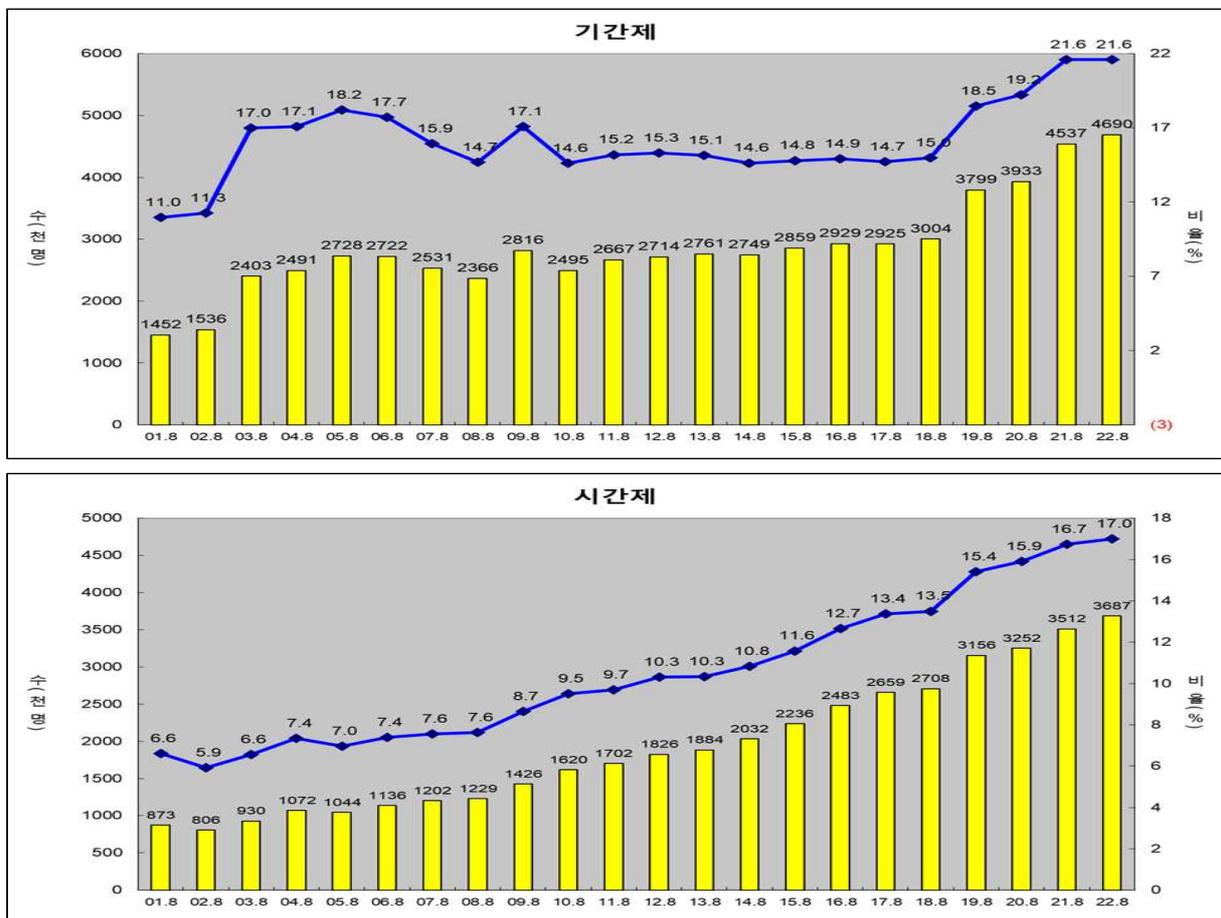
⑧ 가내근로: 문항 68번 응답 1

## 2. 세부 고용형태

세부 고용형태 추이를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는 2005년 273만명(18.2%)을 정점으로 기간제보호법 제정에 힘입어 2008년 237만명(14.7%)까지 감소했다. 2009년에 282만명(17.1%)으로 늘어난 것은 희망근로 때문이며, 2010년 250만명(14.6%)에서 2018년 300만명(15.0%)으로 14~15%대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2019년에는 380만명(18.5%)으로 80만명(3.5%p) 증가했고, 2020년에는 393만명(19.2%)으로 13만명(0.7%p), 2021년에는 454만명(21.6%)으로 60만명(2.4%p), 2022년에는 469만명(21.6%)으로 15만명(0.0%p) 증가했다.

시간제 근로는 2002년 81만명(5.9%)에서 2022년 369만명(17.0%)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 2]와 [표 2] 참조).

[그림 2]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 추이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합친 파견용역근로는, 2002년 43만명(3.0%)에서 2007년 77만명(4.8%)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07~2012년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2년 90만명(5.1%)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최근에는 2016년 90만명(4.6%)에서 2018년 79만

명(3.5%)으로 감소했고, 2019년 이후는 72~80만명(3.5~3.9%)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그림 3)과 [표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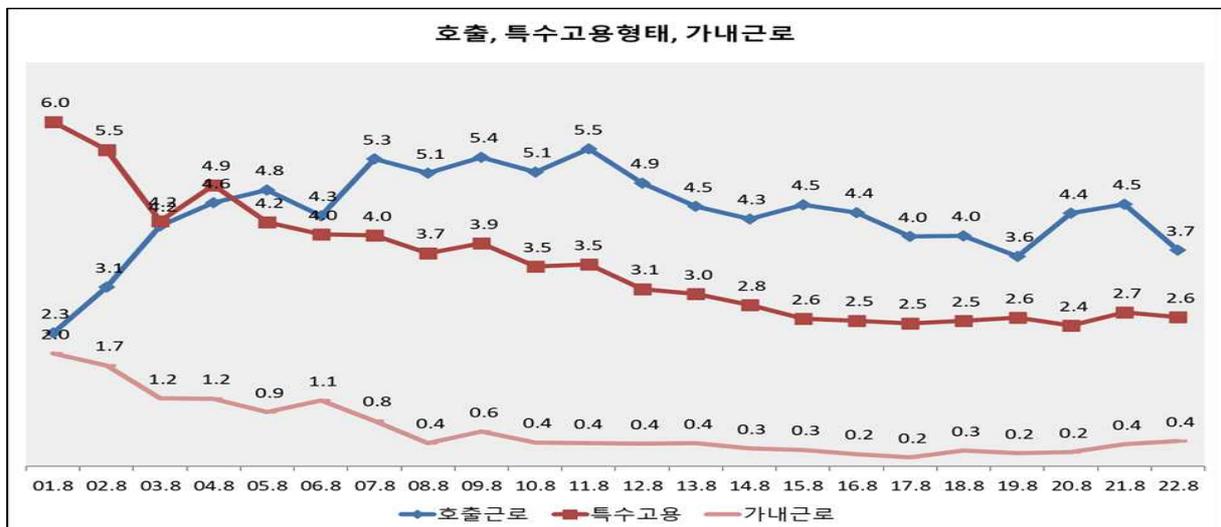
[그림 3] 파견용역근로



호출근로는 2011년 96만명(5.5%)을 정점으로 2019년 75만명(3.6%)으로 감소했다. 2020년에는 90만명(4.4%)으로 15만명(0.8%p) 증가했고, 2021년에는 95만명(4.5%)으로 다시 6만명(0.1%p) 증가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81만명(3.7%)으로 한 해 사이 14만명(0.8%p) 감소했다.

특수고용은 2001년 79만명(6.0%)에서 2020년 50만명(2.4%)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56만명(2.7%), 2022년 56만명(2.6%)으로 증가했다. 가내근로도 같은 시기 26만명(2.0%)에서 5만명(0.2%)으로 감소하다가, 2021년에는 8만명(0.4%), 2022년에는 9만명(0.4%p)으로 증가했다. 특수고용 노동자가 노동계나 정부 추산보다 크게 적은 것은, 상당수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기 때문이다(그림 4)와 [표 2] 참조).

[그림 4] 호출, 특수고용, 가내근로 추이



### 3. 남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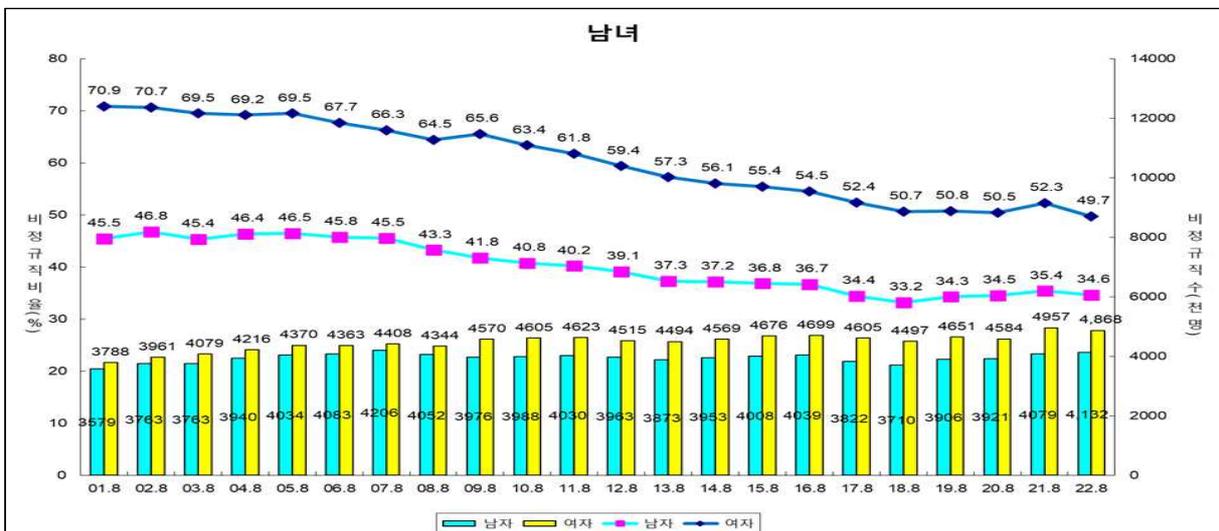
남자는 정규직이 780만명(65.4%), 비정규직이 413만명(34.6%)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492만명(50.3%), 비정규직이 487만명(49.7%)으로 엇비슷하다. 남성 비정규직보다 여성 비정규직이 74만명 많다.

여자는 비정규직 비율이 2001년(70.9%)부터 2022년(49.7%)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남자는 2005년(46.5%)을 정점으로 2018년(33.2%)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9년(34.3%)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20년(34.5%)에 0.2%p, 2021년(35.4%)에는 0.9%p 증가했다. 그러나 2022년(34.6%)에는 0.8%p 감소했다([표 3]과 [그림 5] 참조).

[표 3]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2022년 8월)

	수(천 명)		비중(%)		분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임금노동자	11,936	9,788	100.0	100.0	54.9	45.1	
정규직	7,804	4,920	65.4	50.3	61.3	38.7	
비정규직	4,132	4,868	34.6	49.7	45.9	54.1	
고용계약	임시근로	3,954	4,487	33.1	45.8	46.8	53.2
	장기임시근로	1,598	1,550	13.4	15.8	50.8	49.2
	한시근로	2,356	2,937	19.7	30.0	44.5	55.5
	(기간제)	2,105	2,584	17.6	26.4	44.9	55.1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1,125	2,562	9.4	26.2	30.5	69.5
	호출근로	640	174	5.4	1.8	78.6	21.4
	특수고용	206	355	1.7	3.6	36.7	63.3
근로제공 방식	파견용역	413	342	3.5	3.5	54.7	45.3
	(파견)	88	100	0.7	1.0	46.8	53.2
	(용역)	325	242	2.7	2.5	57.3	42.7
	가내근로	12	83	0.1	0.8	12.6	8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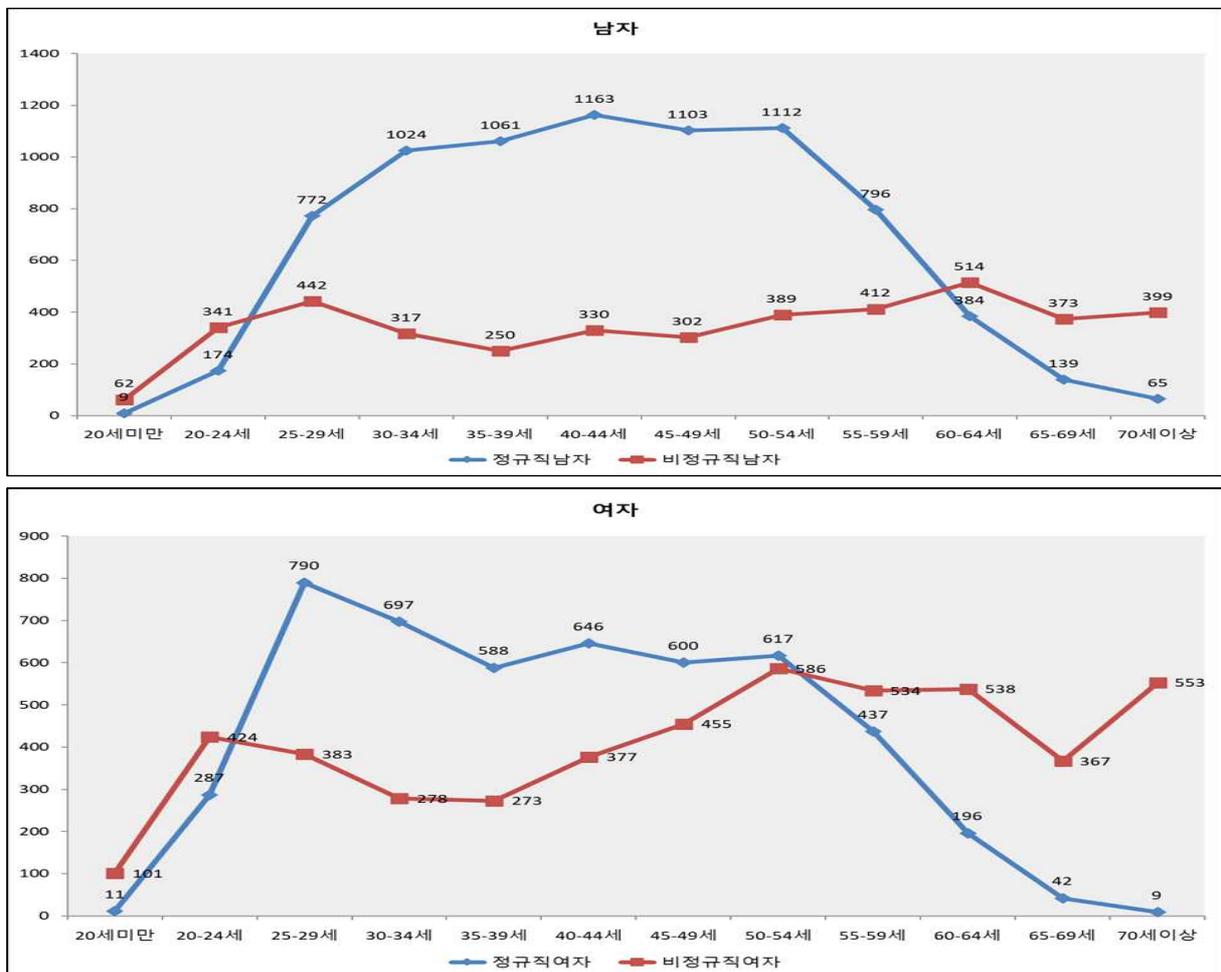
[그림 5]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



#### 4. 연령

남자는 청년층(20대 초반 이하)과 고령층(60대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여자도 청년층(20대 초반 이하)과 중고령층(50대 후반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고, 그밖에 연령층에서는 정규직이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79만명)을 정점으로 30대 후반(59만명)까지 감소하다가 50대 초반까지 60~65만명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30대 후반(27만명)을 저점으로 늘어나 40대 초반에는 38만명, 50대 초반에는 59만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출산과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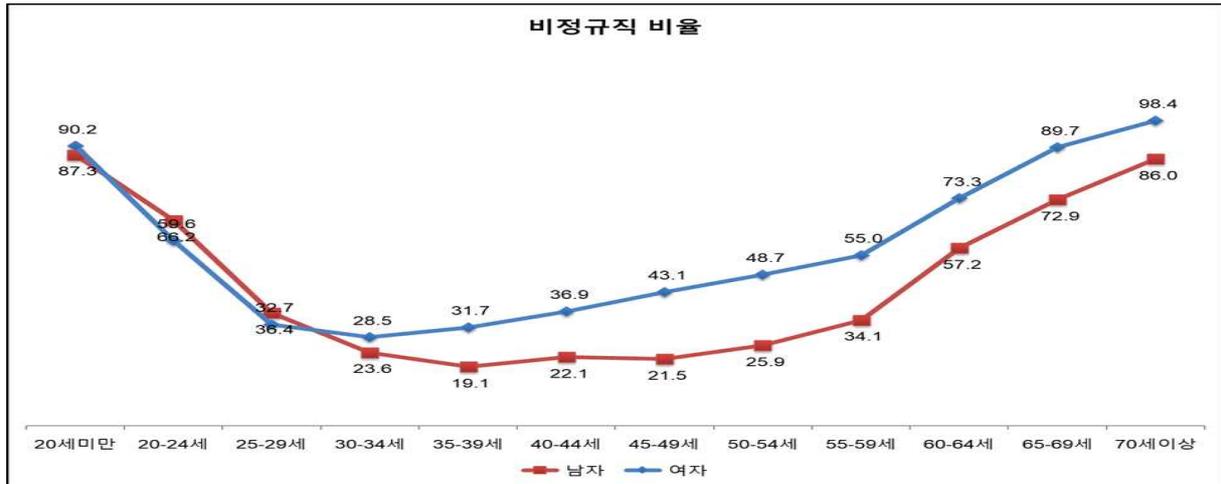
[그림 6] 남녀 고용형태별 연령계층별 분포 (2022년 8월, 단위: 천 명)



성별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는 30~40대(22~24%)를 저점으로 하는 ‘U자형’을 그리는데 비해, 여자는 20대 후반(28.5%)을 저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거나 비슷하지만,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그림 7 참조).

[그림 7] 성별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 (2022년 8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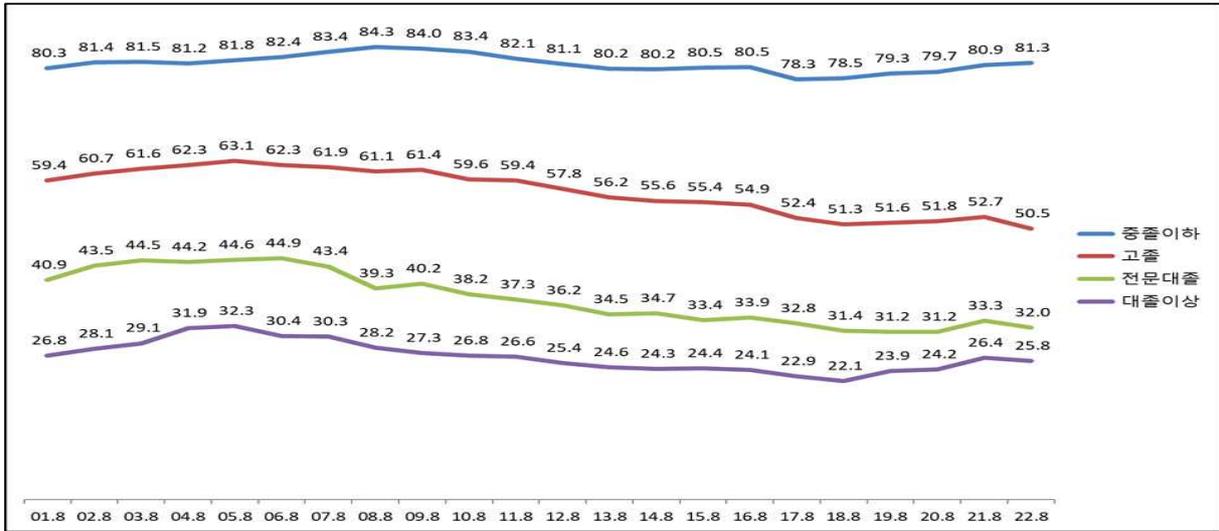
## 5. 학력

비정규직 900만명 가운데 중졸 이하는 187만명(20.7%), 고졸은 394만명(43.7%)으로, 고졸 이하 학력이 581만명(64.4%)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 81.3%, 고졸 50.5%, 전문대졸 32.0%, 대졸 이상 25.8%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 간 격차가 구조화되어 있다([표 4]와 [그림 8] 참조).

[표 4] 학력별 비정규직 규모 (2022년 8월)

	수(천 명)				비율(%)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임금노동자	2,294	7,795	3,213	8,422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428	3,860	2,186	6,249	18.7	49.5	68.0	74.2
비정규직	1,866	3,935	1,027	2,173	81.3	50.5	32.0	25.8
임시근로	1,790	3,705	946	2,000	78.0	47.5	29.4	23.7
장기임시근로	643	1,658	327	519	28.0	21.3	10.2	6.2
한시근로	1,147	2,047	618	1,481	50.0	26.3	19.2	17.6
(기간제)	1,041	1,701	566	1,382	45.4	21.8	17.6	16.4
시간제근로	1,046	1,564	322	755	45.6	20.1	10.0	9.0
호출근로	289	411	49	65	12.6	5.3	1.5	0.8
특수고용	38	278	84	161	1.7	3.6	2.6	1.9
파견용역	218	363	78	96	9.5	4.7	2.4	1.1
(파견)	30	97	30	33	1.3	1.2	0.9	0.4
(용역)	189	267	48	63	8.2	3.4	1.5	0.7
가내근로	20	37	11	27	0.9	0.5	0.3	0.3

[그림 8] 연도별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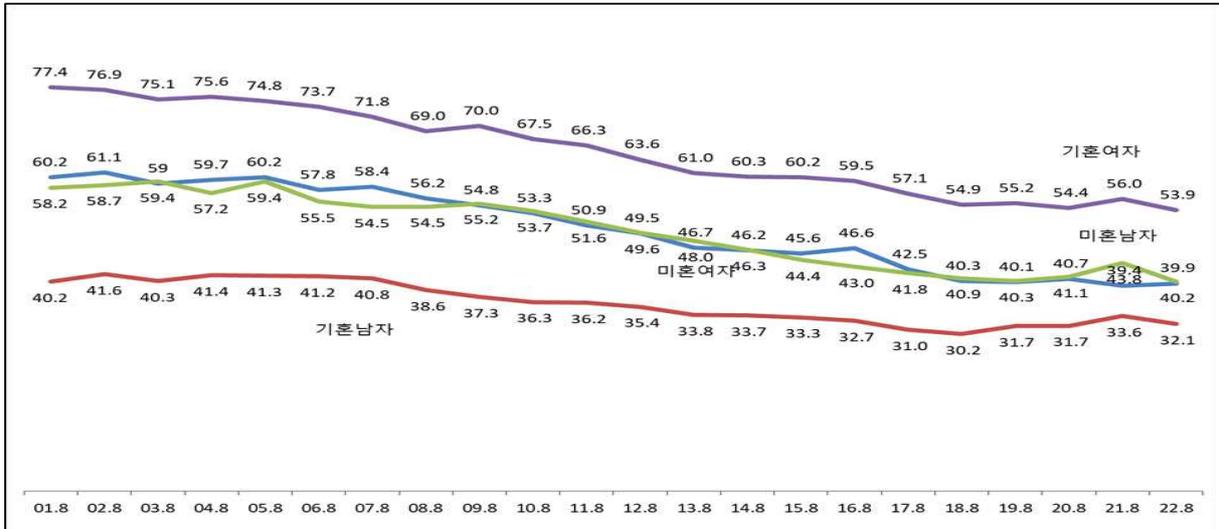
## 6. 성별 혼인여부

비정규직 900만명 가운데 기혼여자는 368만명(40.8%), 기혼남자는 258만명(28.7%)으로 기혼자가 626만명(69.5%)을 차지하고 있다. 성별 혼인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미혼남자 39.9%, 기혼남자 32.1%, 미혼여자 40.2%, 기혼여자 53.9%로, 미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작지만, 기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크다([표 5]와 [그림 9] 참조).

[표 5]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규모 (2022년 8월)

	수(천 명)				비중(%)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임금노동자	3,883	8,054	2,969	6,819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2,335	5,470	1,775	3,144	60.1	67.9	59.8	46.1
비정규직	1,548	2,584	1,194	3,675	39.9	32.1	40.2	53.9
임시근로	1,482	2,472	1,151	3,336	38.2	30.7	38.8	48.9
장기임시근로	627	970	402	1,148	16.1	12.0	13.5	16.8
한시근로	854	1,502	749	2,188	22.0	18.6	25.2	32.1
(기간제)	720	1,385	612	1,972	18.5	17.2	20.6	28.9
시간제근로	474	651	591	1,971	12.2	8.1	19.9	28.9
호출근로	161	479	21	153	4.1	5.9	0.7	2.2
특수고용	65	141	35	321	1.7	1.8	1.2	4.7
파견용역	110	303	25	317	2.8	3.8	0.8	4.6
(파견)	32	56	13	87	0.8	0.7	0.4	1.3
(용역)	78	247	12	230	2.0	3.1	0.4	3.4
가내근로	3	9	10	72	0.1	0.1	0.3	1.1

[그림 9] 연도별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단위: %)



## 7. 산업

비정규직 2명 중 1명(511만 명, 56.7%)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42만명), 건설업(97만 명), 숙박음식점업(95만명), 사업지원서비스업(90만명), 도소매업(87만명) 등 5개 산업에 몰려 있다.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은 최대 100%(가사서비스업), 최소 5.6%(국제및외국기관)로 산업별 격차가 크다([표 6] 참조).

[표 6]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 (2022년 8월)

	수(천 명)					비율(%)				
	비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특수고용	파견용역	비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특수고용	파견용역
농업임업어업	88	13	26	2	1	76.5	11.3	22.6	1.7	0.9
광업	1	1	0	0	1	16.7	16.7	-	-	16.7
제조업	800	460	142	4	19	19.4	11.1	3.4	0.1	0.5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9	5	1	0	0	11.1	6.2	1.2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활경복원	35	22	6	0	1	26.9	16.9	4.6	-	0.8
건설업	969	220	151	2	51	55.7	12.6	8.7	0.1	2.9
금융보험업	327	80	46	238	0	43.5	10.7	6.1	31.7	-
부동산임대업	232	147	63	19	28	58.3	36.9	15.8	4.8	7.0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205	144	51	5	1	18.3	12.9	4.6	0.4	0.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897	571	194	26	576	69.0	43.9	14.9	2.0	44.3
도매소매업	870	288	427	80	20	40.4	13.4	19.9	3.7	0.9
운수업	292	112	82	61	6	32.0	12.3	9.0	6.7	0.7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207	155	42	6	10	22.4	16.8	4.5	0.6	1.1

	수(천 명)					비율(%)				
	비정 규직	기간 제	시간 제	특수 고용	파견 용역	비정 규직	기간 제	시간 제	특수 고용	파견 용역
숙박음식점업	952	231	586	1	8	71.0	17.2	43.7	0.1	0.6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204	105	98	24	0	63.8	32.8	30.6	7.5	-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303	117	130	44	3	45.2	17.5	19.4	6.6	0.4
가구내고용활동 등	79	9	50	1	0	100	11.4	63.3	1.3	-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376	363	239	0	0	30.0	29.0	19.1	-	-
교육서비스업	735	478	446	41	5	46.2	30.0	28.0	2.6	0.3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1417	1166	906	4	27	52.6	43.3	33.6	0.1	1.0
국제외국기관	1	1	0	0	0	5.6	5.6	-	-	-
전 산업	8999	4688	3686	558	757	41.4	21.6	17.0	2.6	3.5

## 8. 직업

비정규직 2명 중 1명(526만명, 58.5%)은 단순노무직(294만명)이거나 판매서비스직(233만명)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최대 78.1%(단순노무직)에서 최소 18.3%(관리직)로 직업별 격차가 크다([표 7] 참조).

[표 7]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 (2022년 8월)

	수(천 명)					비율(%)				
	비정 규직	기간제	시간제	특수고용	파견 용역	비정 규직	기간제	시간제	특수고용	파견 용역
관리자	75	65	9	1	6	18.3	15.9	2.2	0.2	1.5
전문가	1,347	973	476	70	26	26.9	19.4	9.5	1.4	0.5
사무직	911	629	279	19	29	19.6	13.5	6.0	0.4	0.6
서비스직	1,395	617	833	25	69	60.7	26.8	36.2	1.1	3.0
판매직	931	236	424	312	27	60.3	15.3	27.5	20.2	1.7
농림어업숙련직	47	16	5	-	2	69.1	23.5	7.4	-	2.9
기능직	832	263	113	2	57	45.5	14.4	6.2	0.1	3.1
장치기계조작조립원	526	303	81	51	72	24.3	14.0	3.7	2.4	3.3
단순노무직	2,937	1,588	1,468	82	467	78.1	42.2	39.1	2.2	12.4
전 직업	9,001	4,690	3,688	562	755	41.4	21.6	17.0	2.6	3.5

## 9. 사업체 규모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고,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16.2%인데, 5인 미만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68.8%다. 이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사업체 규모에 반비례하는 특징은 장기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파견용역근로 모두 마찬가지다. 하지만 기간제는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체를 정점으로 하는 역U자형을 그리고, 특수고용형태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를 정점으로 하는 역U자형을 그리고 있다([표 8] 참조).

[표 8]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 (2022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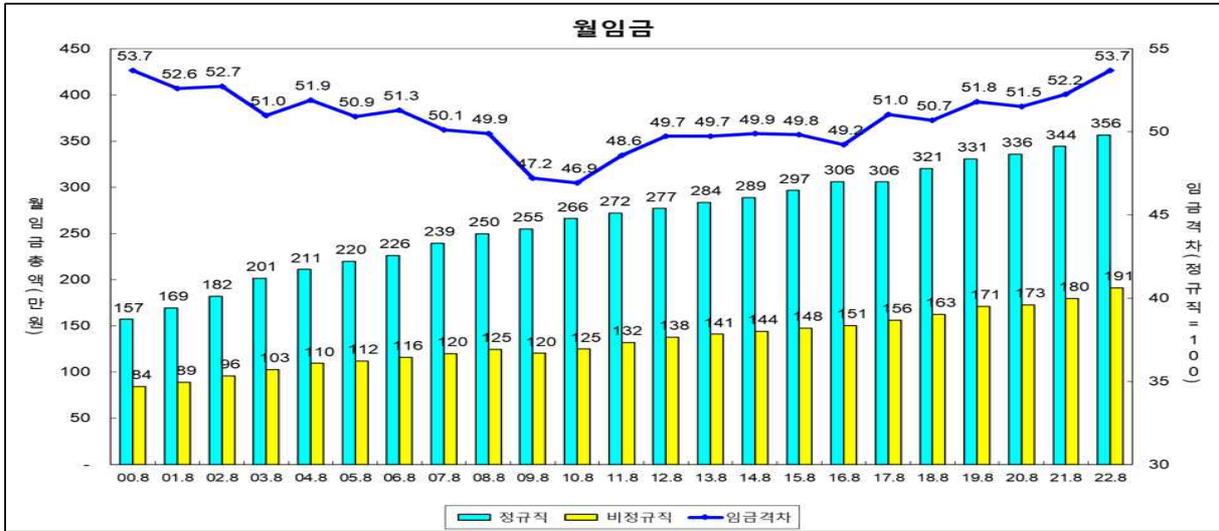
	수(천 명)						비율(%)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임금노동자	3,751	3,772	4,867	4,124	2,153	3,05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1,172	1,819	2,807	2,733	1,630	2,563	31.2	48.2	57.7	66.3	75.7	83.8
비정규직	2,579	1,953	2,060	1,391	523	494	68.8	51.8	42.3	33.7	24.3	16.2
임시근로	2,439	1,845	1,915	1,278	499	464	65.0	48.9	39.3	31.0	23.2	15.2
장기임시근로	1,353	776	577	329	75	37	36.1	20.6	11.9	8.0	3.5	1.2
한시근로 (기간제)	1,086	1,069	1,338	950	424	427	29.0	28.3	27.5	23.0	19.7	14.0
시간제근로	814	923	1,242	894	407	409	21.7	24.5	25.5	21.7	18.9	13.4
호출근로	1,453	866	791	381	89	107	38.7	23.0	16.3	9.2	4.1	3.5
특수고용	365	262	126	40	16	6	9.7	6.9	2.6	1.0	0.7	0.2
파견용역 (파견)	118	62	170	170	29	14	3.1	1.6	3.5	4.1	1.3	0.5
(용역)	186	185	216	121	30	17	5.0	4.9	4.4	2.9	1.4	0.6
가내근로	44	34	54	40	12	5	1.2	0.9	1.1	1.0	0.6	0.2
	142	152	161	81	18	13	3.8	4.0	3.3	2.0	0.8	0.4
	40	15	17	11	4	7	1.1	0.4	0.3	0.3	0.2	0.2

## II.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 1. 월 평균임금

지난 3개월간 월 평균임금은 정규직이 2021년 344만원에서 2022년 356만원으로 12만원(3.6%)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80만원에서 191만원으로 11만원(6.4%)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52.2%에서 53.7%로 1.5%p 축소되었다([그림 10]과 [표 9] 참조).

[그림 10]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추이



[표 9] 연도별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및 격차 (정규직=100)

	금액(만 원)					격차(%)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21년 8월	22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21년 8월	22년 8월
임금노동자	256	264	268	273	288	79.8	79.9	79.8	79.4	80.8
정규직	321	331	336	344	356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163	171	173	180	191	50.7	51.8	51.5	52.2	53.7
임시근로	161	170	172	179	190	50.2	51.4	51.1	51.9	53.4
장기임시근로	155	164	160	170	180	48.3	49.5	47.6	49.4	50.5
한시근로	168	175	180	184	196	52.5	52.9	53.7	53.5	55.1
(기간제근로)	176	181	188	189	202	55.0	54.6	55.9	54.9	56.6
시간제근로	87	93	90	92	100	27.1	28.0	26.9	26.6	28.0
호출근로	159	164	161	178	190	49.7	49.7	47.9	51.6	53.2
특수고용	201	217	215	223	232	62.8	65.5	64.0	64.8	65.2
파견용역	176	187	196	201	211	54.8	56.6	58.5	58.3	59.2
(파견)	193	207	217	215	240	60.3	62.7	64.7	62.4	67.4
(용역)	170	181	190	196	201	53.0	54.8	56.6	56.8	56.5
가내근로	98	93	111	148	149	30.6	28.3	33.0	43.0	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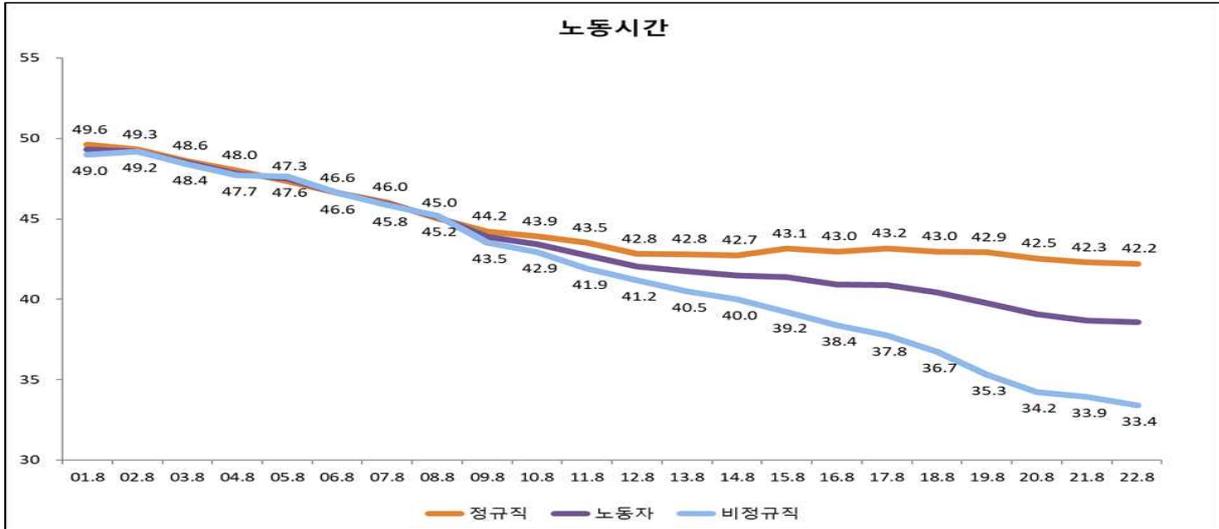
## 2. 노동시간

정규직은 주당 노동시간이 2001년 49.6시간에서 2012년 42.8시간으로 6.8시간 단축되었다. 그러나 그 뒤로는 2022년에도 42.2시간으로 거의 변함이 없다. 비정규직은 2001년 49.0시간에서 2012년 41.2시간으로 7.8시간 단축되었고, 2022년에는 33.4시간으로 다시 7.8시간 감소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 비중은 2021년 99만명(4.7%)에서 2022년

97만명(4.5%)으로 2만명(0.2%p) 감소했다.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은 2021년 108만명(5.2%)에서 2022년 115만명(5.3%)으로 증가했고,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은 389만명(18.6%)에서 403만명(18.6%)으로 증가했다([그림 11]과 [표 10] 참조).

[그림 11] 고용형태별 노동시간 추이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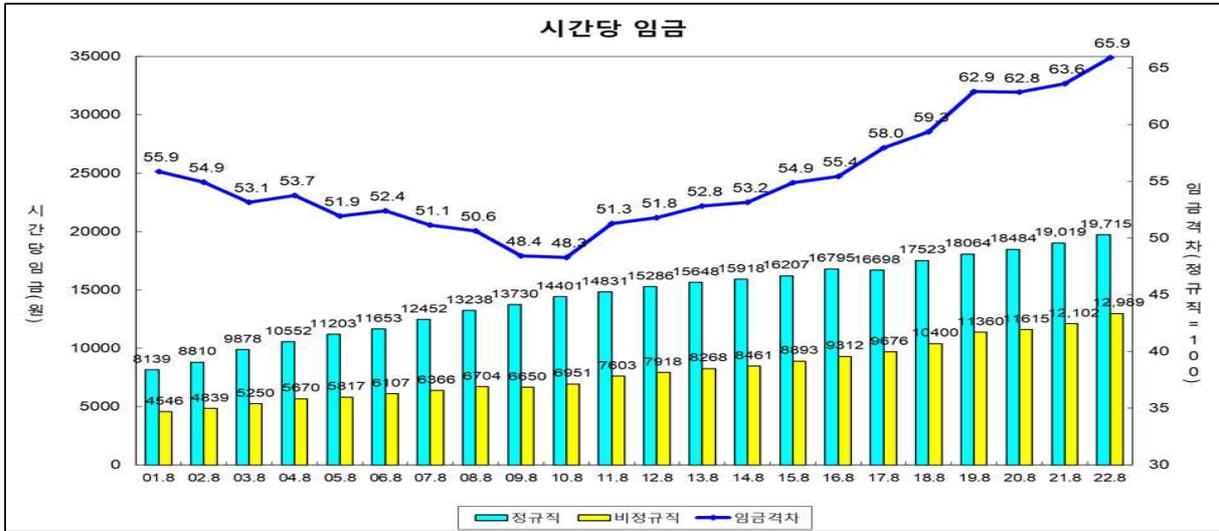
[표 10] 연도별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평균값과 분포

	(평균) 노동시간					2022년 노동시간 계층별 분포(%)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21년 8월	22년 8월	15 미만	15-35	36-40	41-44	45-48	49-52	52 초과
임금노동자	40.4	39.8	39.1	38.7	38.6	5.3	13.3	59.3	1.9	9.8	6.0	4.5
정규직	43.0	42.9	42.5	42.3	42.2	0.0	1.1	74.5	2.2	11.0	6.8	4.3
비정규직	36.7	35.3	34.2	33.9	33.4	12.7	30.5	37.7	1.5	8.2	4.7	4.7
임시근로	36.9	35.5	34.4	34.0	33.5	13.5	28.1	38.7	1.5	8.5	4.9	4.9
장기임시근로	38.4	36.6	35.3	35.1	34.4	8.5	35.5	33.9	1.5	8.7	5.6	6.3
한시근로	35.2	34.5	33.7	33.3	33.0	16.5	23.6	41.6	1.5	8.3	4.4	4.0
(기간제근로)	35.2	34.7	34.0	33.5	33.4	16.3	21.5	43.8	1.6	8.4	4.6	3.8
시간제근로	20.5	20.0	19.6	19.6	19.7	31.0	68.2	0.7	0.0	0.0	0.0	0.1
호출근로	37.1	36.1	35.6	35.3	34.3	6.0	35.5	41.8	0.9	9.2	3.9	2.6
특수고용	40.3	38.9	39.0	39.0	38.3	2.1	25.3	50.4	2.3	8.0	5.2	6.6
파견용역	42.3	41.5	40.9	40.4	40.0	2.9	21.0	45.1	3.7	10.4	7.0	9.8
(파견)	39.7	39.8	39.0	38.7	38.7	5.8	18.9	47.4	2.1	10.0	8.4	7.4
(용역)	43.2	42.1	41.5	41.0	40.4	1.9	21.7	44.4	4.2	10.6	6.5	10.6
가내근로	31.4	28.1	28.3	30.0	29.0	14.9	44.7	33.0	-	3.2	1.1	3.2

### 3. 시간당 임금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시간당 임금 평균이 2021년 19,019원에서 2022년 19,715원으로 696원(3.7%) 상승했고, 비정규직은 12,102원에서 12,989원으로 887원(7.3%) 상승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63.6%에서 65.9%로 2.3%p 개선되었다([그림 12]와 [표 11] 참조).

[그림 12]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추이 (단위: 원, %)



[표 11] 연도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 (정규직 = 100)

	금액(원)					격차(%)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21년 8월	22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21년 8월	22년 8월
임금노동자	14,607	15,274	15,627	16,041	16,929	83.4	84.6	84.5	84.3	85.9
정규직	17,523	18,064	18,484	19,019	19,715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10,400	11,360	11,615	12,102	12,989	59.3	62.9	62.8	63.6	65.9
임시근로	10,212	11,144	11,414	11,946	12,813	58.3	61.7	61.8	62.8	65.0
장기임시근로	9,465	10,610	10,561	11,276	12,113	54.0	58.7	57.1	59.3	61.4
한시근로	11,076	11,584	12,037	12,384	13,230	63.2	64.1	65.1	65.1	67.1
(기간제근로)	11,531	11,861	12,364	12,587	13,449	65.8	65.7	66.9	66.2	68.2
시간제근로	10,157	11,083	10,827	10,871	11,712	58.0	61.4	58.6	57.2	59.4
호출근로	9,856	10,719	10,511	11,668	12,743	56.2	59.3	56.9	61.3	64.6
특수고용	11,548	13,076	12,725	13,280	14,262	65.9	72.4	68.8	69.8	72.3
파견용역	9,862	10,535	11,225	11,740	12,356	56.3	58.3	60.7	61.7	62.7
(파견)	11,402	11,932	12,635	13,008	14,231	65.1	66.1	68.4	68.4	72.2
(용역)	9,373	10,122	10,806	11,284	11,732	53.5	56.0	58.5	59.3	59.5
가내근로	7,600	8,404	9,926	12,054	11,606	43.4	46.5	53.7	63.4	58.9

#### 4. 임금 불평등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 산업 시간당 임금 평균값을 계산하면, 2021년 16,041원에서 2022년 16,929원으로 888원 증가했다. 하위 10% 컷오프의 시간당 임금은 7,711원에서 8,576원으로 805원 증가했고, 상위 10% 컷오프의 시간당 임금은 28,783원에서

28,783원으로 변함이 없다. 상위10% 컷오프와 하위10% 컷오프의 시간당 임금 격차(P9010)는 3.70배에서 3.36배로 감소했다.

월 임금총액 평균값은 2021년 273만원에서 2022년 288만원으로 15만 원 증가했다. 하위 10% 컷오프(cut-off)의 월 임금총액은 80만원에서 92만원으로 증가했고, 상위 10% 컷오프의 월 임금총액은 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함이 없다. 이에 따라 상위10% 컷오프와 하위 10% 컷오프의 월 임금 격차(P9010)는 5.45배로 감소했다([표 12] 참조).

[표 12] 연도별 임금 불평등

	시간당 임금(원)					월 임금총액(만 원)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21년 8월	22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21년 8월	22년 8월
평균값	14,607	15,274	15,627	16,041	16,929	256	264	268	273	288
하위 10%	6,908	7,368	7,599	7,771	8,576	90	89	80	80	92
50%	11,513	12,434	13,040	13,432	14,391	210	230	240	250	250
90%	25,905	26,480	27,632	28,783	28,783	454	480	500	500	500
p9010	3.75	3.59	3.64	3.70	3.36	5.04	5.39	6.25	6.25	5.45
p5010	1.67	1.69	1.72	1.73	1.68	2.33	2.58	3.00	3.13	2.72
p9050	2.25	2.13	2.12	2.14	2.00	2.16	2.09	2.08	2.00	2.00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도 매우 크다. 2022년 월 평균임금이 여자(222만원)는 남자(342만원)의 65.0%고, 비정규직(191만원)은 정규직(356만원)의 53.7%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234만원)은 58.7%, 여자 정규직(289만원)은 72.4%, 여자 비정규직(155만원)은 38.8%다.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시간당 임금 격차는 [표 13] 참조).

[표 13]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 (시간당 임금 기준)

	시간당 임금(원)					임금 격차(%)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21년 8월	22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21년 8월	22년 8월
남자	16,781	17,410	17,788	18,358	19,315	100.0	100.0	100.0	100.0	100.0
여자	11,870	12,618	12,924	13,225	14,019	70.7	72.5	72.7	72.0	72.6
정규직	17,523	18,064	18,484	19,019	19,715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10,400	11,360	11,615	12,102	12,989	59.3	62.9	62.8	63.6	65.9
남자정규직	19,445	20,012	20,392	21,013	21,886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자비정규직	11,422	12,419	12,846	13,518	14,457	58.7	62.1	63.0	64.3	66.1
여자정규직	14,247	14,831	15,330	15,736	16,272	73.3	74.1	75.2	74.9	74.3
여자비정규직	9,556	10,471	10,562	10,936	11,743	49.1	52.3	51.8	52.0	53.7

## 5. 저임금

EU(유럽연합) LoWER(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 3분의 2 이상 2분의 3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 2분의 3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14,391원)의 3분의 2'인 '시간당 임금 9,594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2,172만명 가운데 338만명(15.6%)이 저임금 계층이고, 정규직은 47만명(3.7%), 비정규직은 291만명(32.3%)이 저임금 계층이다. 정규직은 25명 중 1명, 비정규직은 3명 중 1명꼴로 저임금 계층이다. 2017년 21.5%에서 2018년 15.7%, 2019년 15.8%로 푹 떨어진 뒤 2020년 17.4%로 증가했으나, 2021년 16.1%, 2022년 15.6%로 다시 감소하고 있다([그림 13]과 [표 14] 참조).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중위임금(250만 원)의 3분의 2'인 '167만 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2,172만명 가운데 422만명(19.4%)이 저임금계층이다([표 14] 참조).

[그림 13] 고용형태별 저임금 노동자 규모 (2022년 8월, 단위: 천 명)



[표 14] 연도별 저임금 계층 비율 (EU LoWER 기준, 단위: %)

	시간당 임금 기준					월 임금총액 기준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21년 8월	22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21년 8월	22년 8월
저임금	15.7	15.8	17.4	16.1	15.6	17.9	21.6	21.2	21.6	19.4
중간임금	60.1	60.8	60.0	60.2	62.7	57.3	55.4	58.1	58.0	57.8
고임금	24.1	23.5	22.7	23.7	21.7	24.8	23.0	20.7	20.4	22.7

[그림 14] 임금 불평등(P9010)과 저임금 계층 추이



## 6. 법정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

2022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다. 202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 수혜자(최저임금의 90~110% 수령 노동자)<sup>1)</sup>는 222만명(전체 노동자의 10.2%)이다.

최저임금 수혜자(비율)는 2003년 52만명(3.7%)에서 2008년 139만명(8.6%)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09년에는 129만명(7.8%), 2010년에는 122만명(7.2%)으로 감소했고, 그 뒤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서 2013년에는 140만명(7.7%)으로 증가했다. 2014년에는 121만명

1) 최저임금 수혜자와 영향률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ILO(2013)에 따라 최저임금의 90~110%를 수령하는 노동자를 최저임금 수혜자로 정의하고, 전체 노동자 대비 최저임금 수혜자 비율을 최저임금 영향률로 정의한다.

(6.5%)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2015~16년에는 182~184만명(9.4%)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7년에는 175만명(8.8%)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8년에는 237만명(11.8%)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9년에는 220만명(10.7%), 2020년에는 204만명(10.0%), 2021년에는 192만명(9.2%)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에는 222만명(10.2%)으로 증가했다([그림 15] 참조).

[그림 15] 최저임금 수혜자 추이 (단위: 천 명, %)



2022년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76만명(12.7%)이다. 연도별로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1년 59만명(4.4%)에서 2009년 210만명(12.8%)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2년에는 170만명(9.6%)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6~17년에는 266만명(13.6%), 2018년에는 311만명(15.5%), 2019년에는 339만명(16.5%)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319만명(15.6%), 2021년에는 3215만명(15.3%), 2022년에는 276만명(12.7%)으로 감소했다([그림 16] 참조).

[그림 16]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추이 (단위: 천 명, %)



2021년에는 시급제 노동자 209만명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3만명(1.4%), 최저임금(8,720원) 받는 사람이 85만명(40.5%)이었다. 이는 최저임금이 시급제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표준임금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임금구성이 단순명료해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2022년에는 시급제 노동자 247만명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43만명(17.6%), 최저임금(9,160원) 받는 사람이 95만명(38.6%)이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1년 사이 40만명(16.2%p) 증가한 것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9000원(월 27만원 ÷ 월30시간)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시급 9천원을 지급받은 40만명 가운데 37만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다([표 15] 참조).

[표 15] 시급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분포 (2022년 8월, 단위: 천 명, %)

	9000원 미만	9000원	9001~9159원	최저임금 9160원	9161~9619원	9620~1만원	1만원 초과	전체
수(천명)	23	403	8	953	135	445	502	2,469
비율(%)	0.9	16.4	0.3	38.6	5.5	18.0	20.3	100.0
누적비율(%)	0.9	17.3	17.6	56.2	61.6	79.7	100.0	
65세 이상(천명)	4	368	1	134	13	48	64	633

## 7. 임금지급 방식

정규직은 월급제(66.9%)와 연봉제(30.0%) 비중이 96.9%인데, 비정규직은 월급제(46.0%), 시급제(24.7%), 일급제(14.3%), 실적급제(8.2%), 연봉제(6.1%)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특히 시간제근로는 시급제(50.7%), 월급제(31.8%), 일급제(9.4%), 실적급제(6.1%) 순으로, 가내근로는 월급제(47.9%), 시급제(21.3%), 실적급제(19.1%)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이에 비해 호출근로는 일급제(82.5%), 특수고용형태는 실적급제(100.0%), 파견용역은 월급제(67.9%)가 주를 이루고 있다([표 16] 참조).

[표 16] 고용형태별 임금지급 방식 (2022년 8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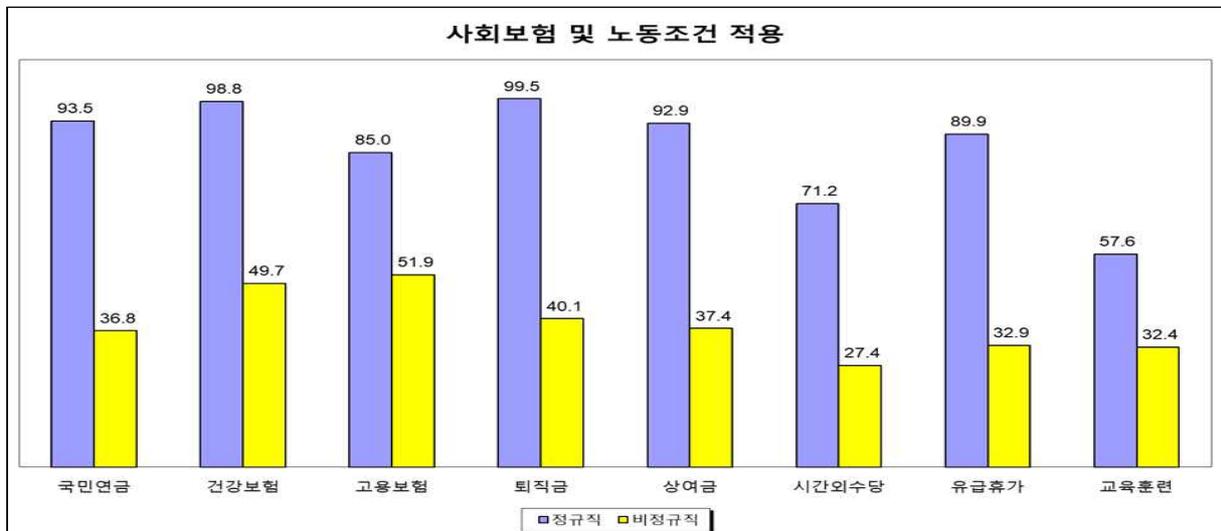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실적급제	기타	전체
임금노동자	11.3	6.3	0.3	58.3	20.1	3.7	0.0	100.0
정규직	1.9	0.6	0.1	66.9	30.0	0.5	0.0	100.0
비정규직	24.7	14.3	0.7	46.0	6.1	8.2	-	100.0
임시근로	25.3	15.0	0.7	44.5	6.0	8.6	-	100.0
장기임시근로	22.9	29.3	1.1	27.7	-	19.0	-	100.0
한시근로	26.7	6.5	0.4	54.4	9.6	2.4	-	100.0
(기간제근로)	25.0	5.2	0.4	57.2	10.7	1.6	-	100.0
시간제근로	50.7	9.4	0.8	31.8	1.1	6.1	-	100.0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실적급제	기타	전체
호출근로	11.8	82.5	1.1	-	-	4.7	-	100.0
특수고용	-	-	-	-	-	100.0	-	100.0
파견용역	12.5	15.5	0.3	67.9	3.4	0.4	-	100.0
(파견)	16.0	19.7	-	55.9	8.5	-	-	100.0
(용역)	11.4	13.9	0.4	71.8	1.9	0.5	-	100.0
가내근로	21.3	4.3	3.2	47.9	4.3	19.1	-	100.0

## 8.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5~99%인데, 비정규직은 37~52%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71~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27~40%만 적용받고 있다([그림 17]과 [표 17] 참조).

[그림 17]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2022년 8월, 단위: %)



[표 17]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2022년 8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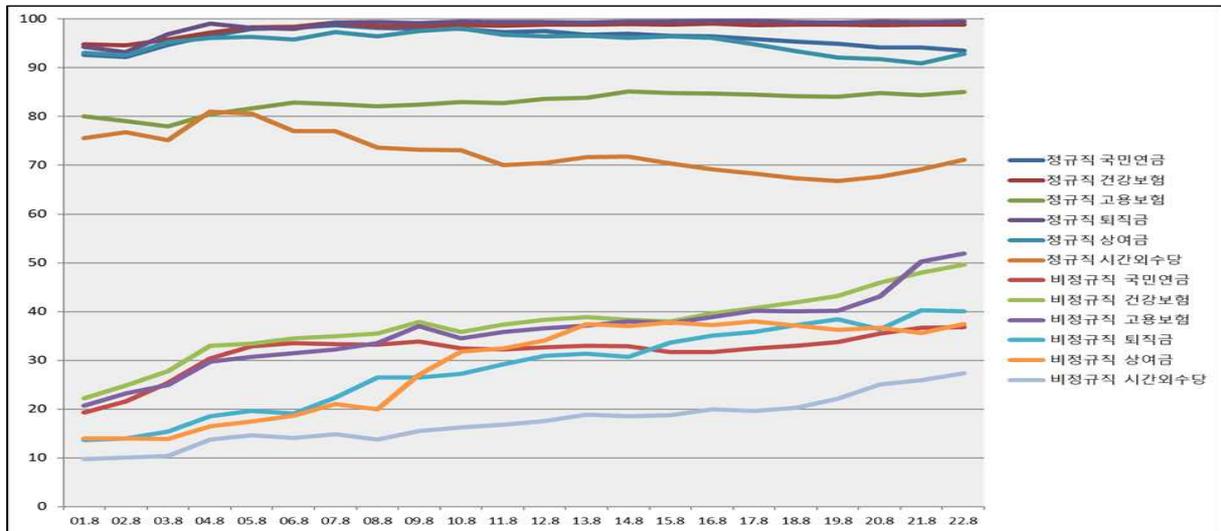
	국민연금 (직장)	건강보험 (직장)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교육훈련 경험
임금노동자	70.0	78.5	71.2	74.9	69.9	53.0	66.3	47.2
정규직	93.5	98.8	85.0	99.5	92.9	71.2	89.9	57.6
비정규직	36.8	49.7	51.9	40.1	37.4	27.4	32.9	32.4
임시근로	34.4	46.7	49.4	36.3	34.9	25.9	30.5	32.2
장기임시근로	13.0	18.3	35.5	10.0	19.0	11.8	3.9	16.6
한시근로	47.1	63.6	57.8	52.0	44.3	34.3	46.3	41.4
(기간제근로)	50.9	68.7	60.9	56.9	47.7	36.4	51.1	44.8
시간제근로	19.9	29.6	31.9	23.4	22.5	16.3	14.7	26.4
호출근로	2.2	3.0	14.9	0.5	3.7	7.5	0.3	8.5

	국민연금 (직장)	건강보험 (직장)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교육훈련 경험
특수고용	5.4	6.8	79.7	4.9	16.2	1.5	1.5	42.6
파견용역	40.8	79.4	60.9	70.4	51.5	37.7	54.0	32.7
(파견)	55.8	78.4	70.2	71.2	51.2	46.7	56.2	35.0
(용역)	35.7	79.7	57.8	70.2	51.6	34.6	53.3	32.0
가내근로	34.8	44.3	44.2	39.0	38.8	1.2	25.8	18.5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과 퇴직금·상여금 적용률이 93~99%에 이르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84~85%, 유급휴가 적용률은 90%, 시간외수당 적용률은 71%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이 2001년 19~22%에서 2022년 37~52%로 증가했고,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적용률은 10~14%에서 27~40%로 증가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고용보험은 2017년 40.2%에서 2021년 51.9%로 4년 만에 11.7%p 증가했고, 건강보험은 40.8%에서 49.7%로 9.1%p 증가했으며, 국민연금은 32.5%에서 36.8%로 4.3%p 증가했다([그림 18]과 [표 18] 참조).

[그림 18] 비정규직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추이 (단위: %)



[표 18] 연도별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단위: %)

	정규직					비정규직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21년 8월	22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21년 8월	22년 8월
국민연금	95.3	94.9	94.2	94.1	93.5	33.0	33.8	35.5	36.7	36.8
건강보험	98.8	98.8	98.7	98.8	98.8	41.9	43.3	45.9	48.0	49.7
고용보험	84.1	84.0	84.8	84.4	85.0	40.0	40.2	43.1	50.3	51.9
퇴직금	99.3	99.3	99.5	99.4	99.5	37.2	38.4	36.4	40.3	40.1

	정규직					비정규직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21년 8월	22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21년 8월	22년 8월
상여금	93.4	92.1	91.7	90.9	92.9	37.1	36.2	36.6	35.6	37.4
시간외수당	67.4	66.8	67.7	69.2	71.2	20.3	22.1	25.1	25.9	27.4
유급휴가	88.7	88.5	89.2	89.5	89.9	25.3	27.1	30.2	31.9	32.9
교육훈련경험	69.0	65.6	62.6	58.7	57.6	38.5	37.5	37.6	33.1	32.4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이외에 지역가입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의료보호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해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계산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49.7%), 지역가입(25.0%),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21.7%), 의료수급권자(1.4%) 등 97.8%가 적용받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직장가입(36.8%)과 지역가입(15.4%)을 합쳐도 가입률이 51.2%밖에 안 된다.

공무원과 교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규직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11.8%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3.3%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46.9%에 이른다. 하지만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이 2020년 43.1%에서 2021년 50.3%, 2022년 51.9%로 2년 만에 8.8%p 높아졌다([표 19] 참조).

[표 19]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률 (2022년 8월, 단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료수급 권자	직장가입 피부양자	미가입	가입	비대상
임금노동자	23.2	70.0	6.8	1.0	78.5	10.8	0.6	9.2	21.3	71.2	7.4
정규직	5.8	93.5	0.7	0.1	98.8	0.7	0.1	0.3	3.3	85.0	11.8
비정규직	47.8	36.8	15.4	2.2	49.7	25.0	1.4	21.7	46.9	51.9	1.2
임시근로	49.4	34.4	16.2	2.4	46.7	26.4	1.4	23.1	49.3	49.4	1.2
장기임시근로	57.2	13.1	29.7	2.7	18.3	47.6	1.7	29.7	64.4	35.5	0.2
한시근로	44.7	47.1	8.2	2.2	63.6	13.8	1.2	19.1	40.4	57.8	1.9
(기간제근로)	42.4	50.9	6.7	1.9	68.7	11.2	1.2	17.1	37.1	60.9	2.0
시간제근로	66.6	19.9	13.6	3.9	29.6	26.0	2.3	38.3	67.5	31.9	0.5
호출근로	67.4	2.2	30.3	3.1	3.1	61.2	2.2	30.4	85.1	14.9	
특수고용	32.4	5.3	62.2	0.5	6.8	65.6	1.1	26.0	20.3	79.7	
파견용역	53.5	40.8	5.7	0.9	79.5	10.6	0.4	8.6	38.8	60.9	0.3
(파견)	37.8	55.9	6.4	1.1	78.3	7.9	0.5	12.2	29.8	70.2	
(용역)	58.7	35.8	5.5	0.9	79.9	11.5	0.4	7.4	41.9	57.8	0.4
가내근로	51.1	35.1	13.8	2.1	44.2	28.4	1.1	24.2	55.8	44.2	

## 9. 근속년수

2022년 임금노동자 근속년수 평균은 6.0년으로 1년 전보다 0.2년 길어졌다. 정규직은 8.5년, 비정규직은 2.5년으로, 각각 0.1년 길어졌다.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는 정규직이 15.6%, 비정규직이 54.3%다. 근속년수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는 정규직이 32.4%, 비정규직이 6.3%다. 이는 그만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심함을 말해준다([표 20] 참조).

[표 20] 근속년수 평균값과 계층별 분포 (2022년 8월, 단위: %)

	근속년수		분포(%)					
	평균값	중위값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임금노동자	6.0	2.7	31.6	12.4	8.1	11.6	14.7	21.6
정규직	8.5	5.3	15.6	11.4	8.1	13.5	19.0	32.4
비정규직	2.5	0.8	54.3	13.8	8.1	8.9	8.6	6.3
임시근로	2.3	0.7	56.5	13.8	7.8	8.2	7.9	5.7
장기임시근로	2.2	0.6	59.3	13.4	6.4	7.9	7.3	5.8
한시근로	2.4	0.8	54.8	14.1	8.7	8.5	8.3	5.7
(기간제근로)	2.5	0.8	53.4	14.2	8.7	9.1	8.7	6.0
시간제근로	1.9	0.6	64.2	11.6	6.7	7.0	6.4	4.0
호출근로	0.0	-	99.3	0.6	-	0.1	-	-
특수고용	5.9	2.6	25.0	17.5	9.8	10.9	16.2	20.7
파견용역	3.1	1.4	41.0	14.8	11.4	12.4	12.7	7.8
(파견)	3.1	1.2	43.9	20.1	6.9	10.6	9.0	9.5
(용역)	3.1	1.6	39.9	13.1	12.9	12.9	14.0	7.2
가내근	2.5	0.6	56.8	10.5	8.4	9.5	6.3	8.4

## 10. 취업 동기

현재 일자리 형태에 비자발적 취업은 정규직이 7.3%, 비정규직이 38.1%다. 정규직은 자발적 취업사유를 ‘안정된 일자리’(47.4%), ‘근로조건 만족’(40.9%) 순으로 응답했고, 비정규직은 비자발적 취업사유를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28.7%)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4.5%)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고용형태별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은 호출근로(73.8%), 장기임시근로(47.7%), 시간제근로(44.4%), 파견용역(43.0%), 특수고용(33.3%), 기간제근로(31.4%) 순이다([표 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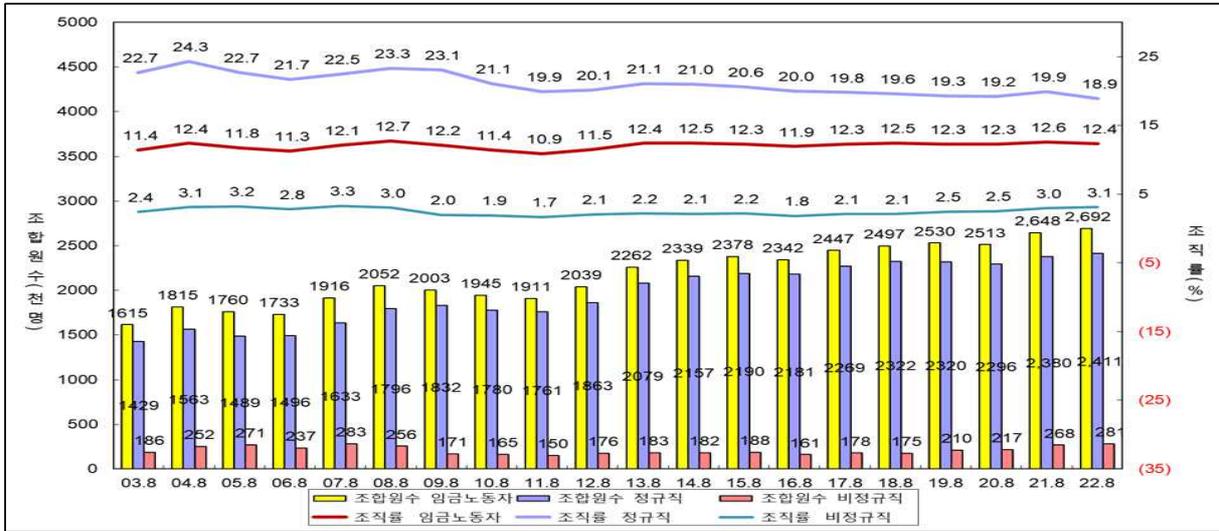
[표 21] 고용형태별 취업동기 (2022년 8월, 단위: %)

	자발적 취업여부		자발적 취업 사유			비자발적 취업 사유			
	자발적 취업	비자발적취업	근로조건만족	안정된 일자리	기타	생활비등 수입필요	원하는일 자리없어	전공경력맞는 일자리무	기타
임금노동자	79.9	20.1	39.4	33.3	7.3	15.0	2.4	0.7	1.9
정규직	92.7	7.3	40.9	47.6	4.1	5.3	1.0	0.4	0.6
비정규직	61.9	38.1	37.2	13.0	11.8	28.7	4.5	1.1	3.8
임시근로	61.0	39.0	36.7	12.5	11.8	29.5	4.6	1.1	3.8
장기임시근로	52.3	47.7	31.2	6.0	15.1	37.2	4.9	1.1	4.5
한시근로	66.1	33.9	40.0	16.3	9.9	25.0	4.4	1.2	3.3
(기간제근로)	68.6	31.4	41.9	17.8	8.9	23.4	4.0	1.0	2.9
시간제근로	55.6	44.4	35.0	5.4	15.2	31.8	5.7	1.1	5.8
호출근로	26.2	73.8	17.2	0.7	8.2	63.9	5.2	1.6	3.2
특수고용	66.7	33.3	32.8	4.8	29.1	22.1	3.7	0.9	6.6
파견용역	57.0	43.0	31.4	20.3	5.2	35.7	4.8	1.1	1.5
(파견)	58.7	41.3	32.6	17.4	8.7	29.5	5.8	0.5	5.5
(용역)	56.4	43.6	30.8	21.3	4.2	37.5	4.6	1.2	0.3
가내근로	61.1	38.9	41.9	7.5	11.6	26.9	5.4	-	6.7

## 11. 노조 조직률

조합원 수(조직률)는 2008년 205만명(12.7%)을 정점으로 2011년 191만명(10.9%)까지 감소했다. 2012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14년에는 234만명(12.5%)으로 3년 만에 43만명(1.6%p) 증가했고, 2015~16년에는 234~238만명(12.3~12.5%)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7년에는 245만명(12.3%)으로 1년 만에 11만명(0.4%p) 증가했고, 2018년에는 250만명(12.5%)으로 5만명(0.2%p)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253만명(12.3%)으로 다시 3만명(-0.2%p) 증가했다. 2020년에는 251만명(12.3%)으로 2만명 감소했지만, 2021년에는 265만명(12.6%)으로 14만명(0.3%p) 증가했고, 2022년에도 269만명(12.4%)으로 4만명(-0.2%p) 증가했다. 조합원 269만명 가운데 정규직은 241만명(18.9%)이고 비정규직은 28만명(3.1%)이다 ([그림 19]와 [표 22] 참조).

[그림 19] 고용형태별 노조 조직률 추이 (단위: %)



[표 22] 연도별 고용형태별 노조 조합원 수, 조직률 및 조합원 구성 (2022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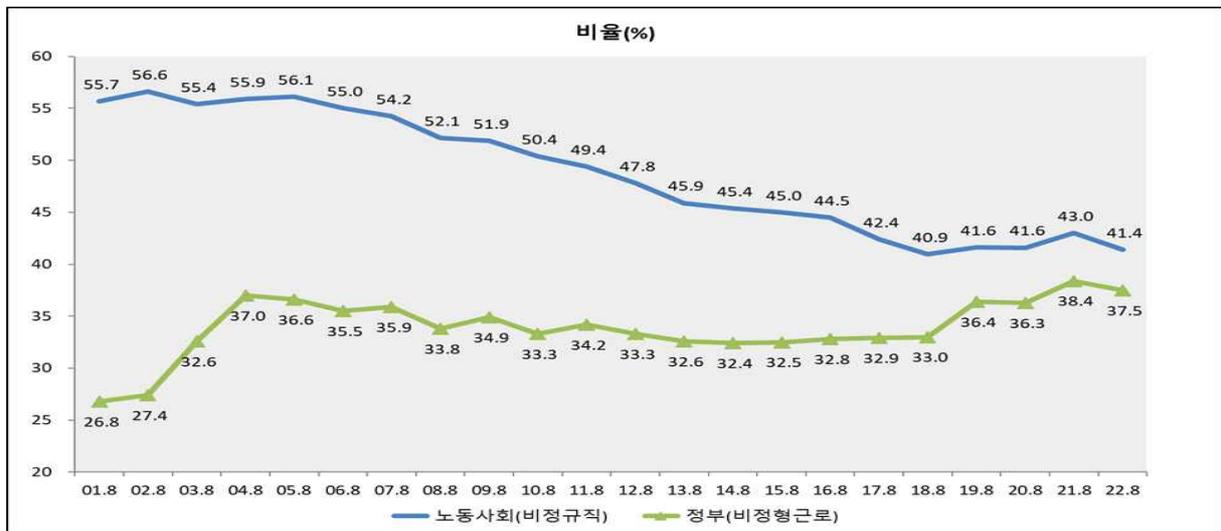
	수(천 명)				비율(%)			
	노조없음	노조유. 가입대상 아님	노조유. 가입대상 미가입	노조가입	노조없음	노조유. 가입대상 아님	노조유. 가입대상 미가입	노조가입
임금노동자	15,750	1,475	1,807	2,692	72.5	6.8	8.3	12.4
정규직	8,018	737	1,558	2,411	63.0	5.8	12.2	18.9
비정규직	7,732	738	249	281	85.9	8.2	2.8	3.1
임시근로	7,264	714	226	237	86.1	8.5	2.7	2.8
장기임시근로	2,984	91	40	32	94.8	2.9	1.3	1.0
한시근로	4,279	623	185	205	80.9	11.8	3.5	3.9
(기간제근로)	3,719	598	181	191	79.3	12.8	3.9	4.1
시간제근로	3,329	266	47	45	90.3	7.2	1.3	1.2
호출근로	791	19	1	2	97.3	2.3	0.1	0.2
특수고용	473	42	34	12	84.3	7.5	6.1	2.1
파견용역	677	25	18	35	89.7	3.3	2.4	4.6
(파견)	165	8	3	12	87.8	4.3	1.6	6.4
(용역)	512	16	15	24	90.3	2.8	2.6	4.2
가내근로	84	7	1	2	89.4	7.4	1.1	2.1

## [보론] 비정규직 규모 추정 방식

2022년 8월 비정규직 규모를 정부<sup>2)</sup>는 816만명(37.5%), 노동사회연구소는 900만명(41.4%)으로 달리 추정하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소 추정 방식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54.2%)부터 2018년(40.9%)까지 꾸준히 감소했고, 2019년 이후는 2021년(43.0%) 한 해를 제외하면 41.4~41.6%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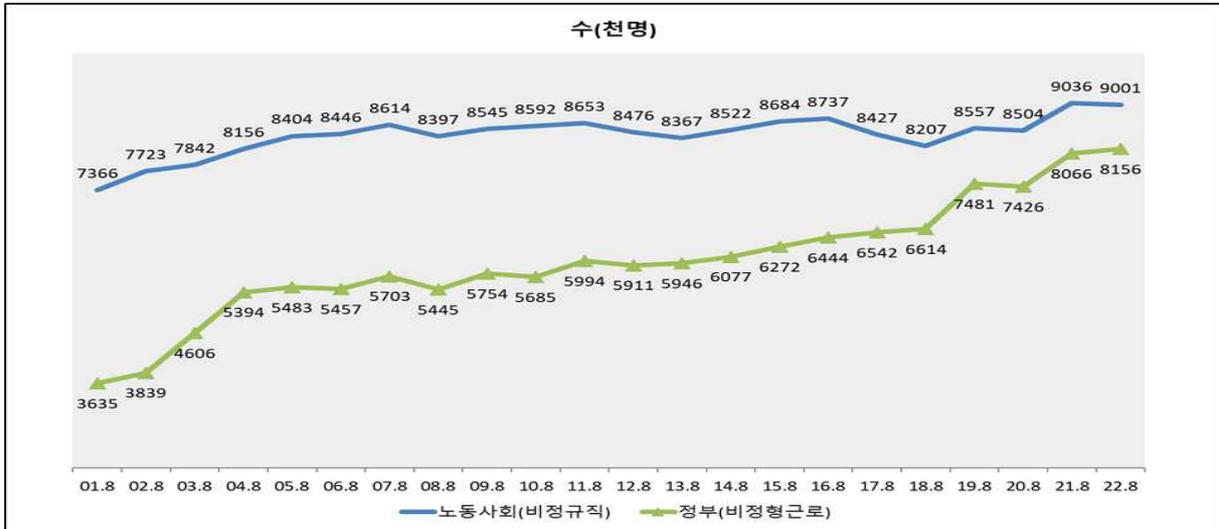
이에 비해 정부 추정방식에 따르면 2002년 27.4%에서 2004년 37.0%로 가파르게 증가한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까지 36~37%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8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2013~18년에는 32~33%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2019년에는 36.4%로 1년 만에 3.4%p 증가했고, 2020년에는 36.3%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2021년에는 38.4%로 2.1%p 증가했지만, 2022년에는 37.5%로 0.9%p 감소했다([그림 20] 참조).

[그림 20] 비정규직 규모 추이



2) 2005년까지는 노동부가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해서 발표했다. 그러나 2005년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실책을 범하면서, 2006년부터 통계청이 비정규직 규모를 발표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계청은 노동부 추정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최종 발표기관이 달라진 것을 제외하면 양자 간 차이는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편의상 노동부 또는 통계청을 정부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추정하는 비정규직을 '비정형근로'로 정의한다.

[그림 20] 비정규직 규모 추이(계속)



동일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했음에도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설문 문항 중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는가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7개 설문 문항(한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추계한다([표 23]에서 ②+③). 그동안 통계청이 발표해 온 임시일용직 가운데 92만명(①)이 실제로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임시·일용직은 일제 때부터 형성된 개념으로, 통계청은 1963년부터 상용·임시·일용직을 구분해서 조사 및 발표해 왔다. 비정규직,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전인 1970~80년대에, 많은 단체협약이 임시직 조항을 체결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노동현장에서 임시·일용직은 불안정고용(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노동사회연구소는 임시일용직 592만명(27.3%)에, 부가조사에서 확인된 상용직 가운데 비정규직 308만명(14.2%)을 합쳐 900만명(41.4%)으로 추계했다([표 23]에서 ①+②+③).<sup>3)</sup>

3) 정부는 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정의한다. 하지만 노동사회연구소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주관적 평가가 게재되기 마련인 ‘비자발적 사유’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정의한다. 부분적으로 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표 23] 비정규직 규모 추계 방식 (2021년, 단위: 천 명, %)

			본 조사		소계
			상용	임시일용	
부가 조사	설문문항 없음	(정형)	④ 12,653(58.2)	① 915( 4.2)	①+④ 13,568(62.5)
	한시, 시간제, 파견, 용역, 가내,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비정형)	③ 3,148(14.5)	② 5,008(23.1)	②+③ 8,156(37.5)
소계			③+④ 15,801(72.7)	①+② 5,923(27.3)	21,724(100.0)

주: 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①+②+③, 노동부 등 비정형근로=②+③, 통계청 임시일용=①+②

비정규직 규모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인 임시일용직 가운데 92만명, 즉, ‘정형-임시일용’ ①의 구성과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저임금계층이 32만명이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7만 명이다. 시간당 임금은 1만1,610원으로 가장 낮고, 주당 노동시간은 44.8시간으로 가장 길다. 기혼여자(32.1%)와 중졸이하(19.7%) 비중이 높고, 사회보험 적용률은 26~41%, 시간외수당 등 노동조건적용률은 9~32%로 매우 낮다.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도 14.1%로 가장 낮다 ([표 24] 참조).

[표 24] 노동자 구성 및 노동조건 비교

	2020년8월				2021년 8월				2022년 8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노동자 수(천 명)	1,181	4,695	2,731	11,838	1,034	5,065	3,001	11,892	915	5008	3148	12653
비율(%)	5.8	23.0	13.4	57.9	4.9	24.1	14.3	56.7	4.2	23.1	14.5	58.2
저임금계층(천명)	494	2,172	327	558	383	2,195	375	422	322	2190	414	454
최저임금미만(천명)	439	2,000	280	471	367	2,151	334	363	270	1851	300	335
월 평균임금(만원)	193	133	237	336	206	141	238	345	222	148	252	357
시간당 임금(원)	10,070	10,513	14,270	18,522	10,798	11,014	14,391	19,055	11,610	11,777	15,303	19,757
주노동시간(시간)	44.7	28.9	39.2	42.5	45.0	28.9	38.9	42.3	44.8	28.2	38.6	42.2
근속년수(년)	2.5	1.4	4.3	8.5	2.5	1.4	4.1	8.5	2.5	1.5	4.1	8.5
기혼여자비율(%)	33.4	43.1	40.3	24.4	35.7	42.0	41.0	24.2	32.1	41.6	42.0	24.6
중졸이하비율(%)	17.2	28.0	12.8	4.0	17.2	26.9	12.7	3.8	19.7	26.0	12.5	3.3
국민연금적용(%)	26.4	15.1	76.9	94.2	25.8	17.0	74.5	94.2	26.2	16.2	73.4	93.6
건강보험적용(%)	31.0	22.2	95.2	98.7	33.3	24.1	94.6	98.8	34.8	24.5	95.0	98.9
고용보험적용(%)	31.6	23.1	84.5	84.7	39.0	32.4	85.3	84.4	41.2	34.3	83.5	85.0
퇴직금적용(%)	16.5	7.6	96.7	99.5	25.4	10.6	96.9	99.4	18.6	8.9	97.2	99.5
상여금적용(%)	35.6	15.1	76.3	91.7	37.4	14.4	71.7	91.0	31.8	16.4	73.7	92.9
시간외수당(%)	14.1	13.2	52.2	67.7	14.6	14.0	50.6	69.3	17.0	14.5	51.8	71.2
유급휴가(%)	11.0	9.7	76.0	89.2	10.7	10.9	75.9	89.6	8.6	11.1	75.3	90.0
교육훈련경험(%)	16.1	33.7	54.2	62.6	16.0	27.0	49.4	58.9	14.1	25.8	48.1	57.7
노조조직률(%)	0.8	0.6	7.1	19.3	1.2	0.5	8.0	19.9	1.6	1.0	7.0	19.0